

# 일본이 본 동남아 각국의 전자공업 동향

**일** 본 전자기기공업회 (EIAJ)가 금년 동남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전자공업동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엔고하에서 일본전자기계 부품공업의 이지역에서의 생산물량등 변화가 예견되어 실시한 동 조사보고서에서 일본전파신문이 발췌 보도한 각국별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 한 국

- 반도체, 액정에 투자 현저

엔고 원저로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일단 강점이 있으므로 대재벌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여 설비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을 위시하여 전자공업에서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액정 분야의 투자가 현저하다.

또 한편으로는 AV기기 코오드레스전화등 저가격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등 해외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대 만

- 퍼스컴왕국을 구축

순조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퍼스컴과 관련상품인 마보드, 마우스, 키보드 등이 있고, 바야흐로 퍼스컴왕국을 이룩한 감을 느낀다.

또 한편으로 칼라모니터는 14인치가 중국, 말레이시아, 타이등 해외 시프트로 가속화 되고 있고 15인치 17인치로의 고부가가치화로 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멀티미디어의 기대감은 주목할 만하다.

## 중 국

- 문제는 물류

경제과열억제의 효과와 그 징후가 나타나 부동산위주의 외국투자감소, 다만, 일본의 투자는 증가. 장강(長江)연안 경제권, 환 발해경제권 등의 일본기업 옵션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문제는 물류이다. 심천의 홍콩화가 가속되고 제조업은 시 주변지역으로의 옵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과의 격차에 따른 경제특구 정책의 호전, 세계의 변경, 중앙으로 부터의 압력, 돌발적 레규레이션의 변경등에 요주의.

## 홍 콩

- 조달방법의 전환

상황은 견실한 상태. 전자업체로서는 최근 수년 호조가 계속되어 기기생산도 CTV오디오등 일부 부진사업이 정상화되었다.

일본계 오디오메이커의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IPO(국제조달기구)는 싱가포르와 같이 기능강화의 방향보다는 조달방법으로 부품메이커와의 직거래 경향이다.

'97년도 이후의 체제는 현상태대로 이행이 예상된다.

### 베 트 남

- 공업국으로 탈바꿈

'94년 2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본격적 이행 시기를 맞음.

인구 7200만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근면한 국민성과 저임금의 이점을 살려 금후 급속한 공업국으로의 탈바꿈이 예견된다.

산업기반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렉트로닉스에서는 한국기업의 대형투자가 이루어지고 일본기업도 조업중 또는 준비중인 기업이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정부의 산업유치정책에 호응해서 시장내 생산과 수출기지와의 상호발전을 꾀하고 있다.

### 타 이

- 신규 생산품목이 증가

환경에 큰 변화는 없지만 투자선으로서의 안정감이 증대하고 있다.

일본기기 메이커의 신규생산개시품은 추가되고 또한 기존 생산품목의 수량증가를 꾀하고 있다. 노동쟁의도 안정되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기반이 충실히 이루어져 방콕주변의 제1손과 제2, 3손(지방)과의 임금격차가 축소된 것은 진출 각사의 채용계획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환경(공해)규제가 엄한 반면 외국송금의 완화 수입관세의 인하등으로 '94년에는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290%나 되었다.

### 필 리 핀

- 수출기지로 진출활발

'92년도를 시작으로 라모스 정권은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여 경제자유화와 외자유치 촉진책을 써서 확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기반도 개선되어 투자환경정비와 풍부한 양질의 저렴한 임금을 무기로 일본, 한국, 대만계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지로써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말레이시아

- 10%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

정치경제의 안정, 경제기반뿐아니라 부품재료에 대한 안정된 가격을 무기로 말레이시아는 「셋트 생산의 최적지」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요학대를 배경으로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은 횡장(橫長)TV(WIDE TV)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의 전환등으로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격한 성장과 엔고로 유발된 구조적 문제해소를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의 셋트, 부품각사는 신전략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

### 싱 가 폴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S\$(싱가폴 달러)고가 지속되고 임금상승이 계속되어 실질임금(US\$비교)은 대폭 상승되었다.

퍼스컴 관련상품의 생산은 급격한 신장을 이룬 반면 IPO 취급고는 '93년도에 피크현상을 보였다.

S\$고는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의 전환으로 정부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예상외의 속도에 의한 공동화대책과의 밸런스를 이루어 가는 것이 주목된다.

### 인도네시아

• 경제, 테이크오프시기

「가전원년」이라는 용어로 대

표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테이크 오프의 시기를 맞았다.

전화보급율도 50%를 넘어 '94년도의 CTV의 수요는 120만대(전년대비 130%), '95년도의 냉장고의 수요는 100만대(동 130%)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의 일반소비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소비경향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되었다.

경제 기초구조인 도로정비의 문제가 있지만 관세인하와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적극적이다.

이와같은 조건에서의 건설과 전기제품에 대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은 주목할 만하다.

■ 자료제공/일본 「전파신문」

## 일 반 경 제 지 표

		한 국	대 만	홍 콩	베트남	타 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 구 (만 명)	'93	4,405	2,093	602	7,200	5,854	6,739	1,905	287	18,900
	'94	4,462	2,117	610	7,350	5,909	6,903	1,950	293	19,300
	'95	4,500	2,200	620	7,500	6,000	6,945	1,996	299	19,600
1인당 GNP (US\$)	'93	7,466	10,852	18,518	238	2,106	853	3,317	17,674	750
	'94	8,409	11,604	21,759	259	2,400	988	3,615	20,415	884
	'95	10,200	12,944	24,556	280	2,670	1,066	3,938	24,000	900
경제성장률 (%)	'93	5.6	5.9	5.5	8.0	8.1	2.14	8.3	10.1	6.9
	'94	8.5	6.5	5.5	8.8	8.4	4.28	8.5	10.1	7.1
	'95	9.3	6.9	5.8	9.0	8.5	5.20	8.5	8.1	7.6
소 비 자 물가상승(%)	'93	5.8	2.9	8.5	5.2	3.3	7.6	3.6	2.4	9.8
	'94	5.6	4.1	8.1	14.4	5.4	9.0	3.8	3.6	9.2
	'95	5.8	3.9	9.2	20.0	5.3	11.8	3.8	3.3	9.8
실업률(%)	'93	2.8	1.5	2.0	20~25	3.7	9.3	3.0	2.7	-
	'94	2.5	1.4	1.8	20~25	4.0	9.5	2.9	2.6	-
	'95	2.2	1.6	3.2	20~25	4.0	9.0	2.8	2.5	-
환 율 (대 일본엔)	'93	0.1389	4.193	14.5	-	4.38	4.18	41.49	68.63	0.0498
	'94	0.1266	3.802	13.5	-	4.04	3.86	39.22	66.89	0.0486
	'95	0.1136	3.333	11.0	-	3.50	3.36	33.33	63.29	0.0392